은행/지주 Analyst 은경완
02. 6454-4870
kw.eun@meritz.co.kr

메리츠 금융 Daily

2022년 7월 1일 (금)

News

5월 은행 가계대출 평균금리 4.14%…8년여 만에 최고 — 중앙일보

지난달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평균금리는 연 4.14%로 한달전대비 0.09%p 상승… 2014년 1월 이후 8년 4개월 만에 가장 높아…
평균 금리 상승을 이끈 요인은 신용대출 금리… 연 5.78%로 한 달 전대비 0.16%p 상승… 반면 주담대 금리는 한 달 전과 동일한 연 3.9% 유지

금리 낮고 천천히 오르는 주담대 늘듯…당국, 금리 부담 완화 잇단 주문 — 이데일리

금감원, 최근 시중은행에 신잔액기준 코픽스 적용 상품의 출시 확대 권고… 여당 요청했으나 금감원이 미리 금리 급등에 따른 차주 상환 부담 완화를 위해 움직여…
우리은행과 NH농협은행이 신잔액 기준 주담대 상품이 없어… 농협은행 측은 아직 검토한 바는 없지만 당국 예의주시중… 다만 금리 낮게 운용시 고정금리 대출 상품성 저하 우려

외환 이상거래 있나 없나…은행권, 자체 점검 나섰다 — 이데일리

5대 시중은행, 우리은행의 이상 외환거래와 유사한 사례있는지 자체 점검 시작… 특히 이번 사안이 가상화폐와 관련되었을 의혹이 강하게 제기돼 선제적으로 나서…
아직 점검 중이거나 이상 거래 포착된 바 없어… 다만 일부 은행에서는 이상거래가 이미 나와 금융당국에 보고된 사항도 있다고 알려져…

대법, '신한銀 채용비리 혐의' 조용병 회장 무죄 확정 — 동아일보

대법원 2부,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에게 무죄 선고한 원심 확정… 정당한 채용 과정 거쳤을 수 있고 관여 사실 인정 증거 부족하기 때문
사법 리스크를 덜어내 3연임 도전에 파란불 켜졌다는 분석… 이번 임기는 내년 3월에 만료 예정

이복현 "태풍 전 가지치기 필요"…보험사에 '자본관리' 강력 주문 — 뉴스1

이복현 금감원장, 보험사들에게 재무건전성 강화 주문… 자구노력이 부족할 경우 적기시정조치 등 필요 조치에 나서겠다는 입장
MG손해보험 관련 상황에 대해서는 말 아껴… 전사적 자본관리 강화와 자본확충 시 유상증자 등을 통한 기본자본 확충을 우선 고려할 것 주문

자금조달 여건 악화에도…메리츠·롯데손보 추가 자본확충 — 연합인포맥스

메리츠화재, 사모형태로 1,100억원 규모의 신종자본증권(영구채) 발행… 지난 2월 말 이사회에서 승인한 영구채 발행한도 3,000억원에 포함된 금액
이번 자본성증권까지 합산하면 메리츠화재의 자본확충 총액은 5,000억원 넘어서… 롯데손보는 내달 중 1,500억원의 후순위채 발행해 자본력 확충 도모 계획

수요 감소에 1Q 파생결합증권 발행 전년比 9조↓…금감원 "잠재 리스크 대응" — 연합인포맥스

1분기 증권사 파생결합증권 발행액이 14조 5,000억원…전년 동기 24조 1,000억원 대비 9조 5,000억원 가량 감소한 수준
주가연계증권은 전년동기대비 36% 감소… 증권사의 파생결합증권 발행 및 운용 손익은 602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79.5% 감소

비상장거래소 '개점 휴업' 위기 — 한국경제

증권플러스 비상장과 서울거래 비상장은 1일부터 거래 가능 종목 제한… 금융위원회가 투자자 보호 조치 강화하라는 조건 내걸었기 때문
일반투자자는 컬리, 비바리퍼블리카 등 인기 비상장주식을 이들 거래소에서 거래할 수 없게 돼… 이스타항공 비상장주식이 2주 이상 연속 거래된 것이 발단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